상형문자로 재해석한 '일체유심조'

동방대학원대학교 이영철 교수 서예전



이영철 교수는 현대적 언어로 서예 작품을 재해석했다. 대표작인 '일체유심조'.

동방대학원대학교 이영철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가 8월 28~9월 3일 백악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오랜 시간 서예작가로 활동해온 이 교수는 환갑을 맞아 불교와 유교 사상이 담긴 서예작품 76점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어린 시절 서당 훈장인 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우며 서예를 배웠다는 그는 그동안 중국전시와 국내 단체전 등에 출품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이번 전시를 열게 되었다.

"서예란 예술로 이해하기 이전에 철학과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작품은 자연과의 조화와 마음자리를 표현하고픈 '유심조(唯心造)' 를 시작으로, 지난날의 자취를 쫓아 오늘을 열겠다는 '복고개금(復古開今)' 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옛글자들을 현대 미학으로 조명해 재해석해보고자 했죠.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회화와 문자는 하나에서 출발했죠. 이런 의미를 작품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유심조(唯心造)' 는 이 교수가 대표작으로 뽑는 작품이다. 상형문자를 그만의 시각으로 해석해 새의 모양 등으로 글자를 표현하고 일체유심조의 의미를 담아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픈 마음, 웃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 행복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등 셀 수 없는 수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마음이라는 한 곳의 결과물이죠.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입니다. 서예 역시 유심조(唯心造)입니다. 서(書)가 현상이라면 예(藝)는 마음이니 이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기원전 1600년 경 사용되었다는 갑골문자도 그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신심명' 으로 탄생했다. 신심명은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도는) 화통해져 명백히 드러난다' 는 의미를 담아 작품으로 완성했다.

이밖에도 태고국사 시, 예장종경선사의 선시, 진각국사의 시 등을 그만의 필체에 담아냈다. 절수행과 해인사 백련암 아비라 기도를 하며 작품을 완성했다는 그는 불교의 정신을 듬뿍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절수행으로 마음 닦아
'신신명' 등 불교 정신 담은
고문의 현대화 시도 '눈길'

한편, 이영철 교수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북경대학교에서 고문자학 전공 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중국서안교통대학 초대전(2014년)을 연 바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이사, 한국전각협회 이사, 한국서예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와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02)734-4205

정혜숙 기자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4인 4색 법문

법현·월도·남전·선업 스님이 펼치는 '생방송 BTN 즉문즉설'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라니 기도 관음기도 다양한 기도를 해봤는데 무엇이 저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할까요?"

"불자로서 복덕과 공덕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화경 사경을 16번 정도 했는데 그냥 집에 두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향해야 할까요?"

불자들의 고민을 4인 4색의 스님들이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어 화제다. '생방송 BTN 즉문즉설' (담당 허찬 PD)은 지난 5월 19일 개편 이후 △부부가족 치료 전문가 선업 스님(뫔센터 원장) △쉽고 재미있는 생활법문을 이끌어주는 월도 스님(분당 대광사 주지) △저잣거리 포교의 선봉장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초보 불자들의 길라잡이,남전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등 네 명의 스님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한 명씩 출연자로 나서 생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화와 문자,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불자들이 안방에서 편안하게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시청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BTN은 "궁금하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신행상담, 꽉 막혀 답답했던 삶의 고민, 속으로만 삭혀온 가족과 다양한 관계 속 갈등 등의 고민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답답한 우리 삶에 대한 물음표를 깨달음의 느낌표로 바꿔 주는 네 분 스님들의 답변을 통해 각자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취지를 전한다.

가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선업 스님은 가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업 스님은 "생방송으로 불자들의 사연을 직접 듣고 답하다보니 대중들과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가족 문제를 전문으로 다양한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방송 역시 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각자의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되고 이것이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담을 통해 스스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다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월도 스님(분당 대광사 주지)은 불자들이 불교의 그릇된 인식을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교리 내지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신행 교리 가족문제 등 다양한 고민
현장에서 전화와 문자로 상담하며
스스로 해답 얻는 지혜의 길 안내

부분들을 많이 질문해주신다. 특히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수행 방법을 놓고 고민하는 불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지도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자신의 방법이 최고라고 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거 같다. 불교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은 폭넓은 시각의 답변을 통해 질문자 스스로 해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님은 "교리교학과 수행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다. 재가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폭 넓은 답변을 위해 방청객들의 참여를 유도, 질문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방송에 대해 설명한다.

남전 스님은 신행의 기본부터 체계적 설명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불자들의 신행이 타인을 위한 '행' 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의 부재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자들의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한 다음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주고자 한다"고 전한다.

담당 허찬 PD는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네 분의 스님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바른 신행상활로 안내하고자 한다. 네 분 스님들의 각기 다른 해답이 불자들의 답답한 일상에 시원한 감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자들의 고민을 4인 4색의 스님들이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는 '생방송 BTN 즉문즉설' 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법현 스님, 월도 스님, 선업 스님, 남전 스님

법현 스님
운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태고종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열린선원을 통해 저잣거리 포교에 힘쓰고 있다.

월도 스님
노인복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천태종 총무부장이자 분당 대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남전 스님
신문과 방송을 통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과 서울 창동 정혜사 주지로 활동하며 포교에 힘쓰고 있다.

선업 스님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족치료학을 전공하고 스님으로서는 드물게 상담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뫔센터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흥사 12호 사찰도서관으로 선정

조계종 문화부 백천문화재단 지원… 8월 21일 기증식 개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관하고, 백천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부처님 글사랑, 신흥사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 이 8월 21일 울산 신흥사에서 열렸다.

신흥사 사찰도서관은,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포교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점을 인정받아 조계종 문화부가 선정하는 12호 사찰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기증식에는 1,000여권의 불서가 전달됐고 '부처님글사랑' 현판 및 기증서도 전달됐다. 불서를 기증한 백천문화재단은 장학사업, 병원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출판 및 도서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문화부는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에 봉행했던 불교 도서전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9월 중 제13호 사찰 도서관 거창 행복한절에 지원한다.

정혜숙 기자

불교박람회 조직위 중국 샤먼 국제전람회 참여

10월 15일~19일…한국관 7팀 참여

2015 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10월 15일~19일 5일간 제9회 중국 샤먼 국제 불사용품전람회에 참여한다. 중국 샤먼 불사용품전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로 중국 푸젠성(福建省) 샤먼시(厦門市) 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한국관' 에는 불교예술 작가와 전통 산업 분야 업체 등 총 7팀이 참가한다.

불상조각가 서칠교 씨는 그의 대표작인 33관음 도상 조각을 출품한다. 서 작가는 홍익대에서 서양 조각을 공부하고 불교미술에 심취 불상 제작에 매진해왔다.

이진형, 이재윤 부자 작가의 출품도 눈길을 끈다. 젊은 작가 이재윤 씨는 불교조각장 이진형 씨의 아들이다. 지난해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14 불교박람회 '붓다 아트페스티벌' 에 동참했다. 대전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가 이진형 조각장은 2011년 평생을 바쳐 조성한 불교미술관을 조계종에 희사한 바 있다.

갤러리 나무는 임상진 작가와 이영섭 작가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나무는 특색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신인작가를 발굴해 부산경남 지역 미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4 불교박람회에서 선정한 '부디즘어워즈 우수업체상' 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샤먼 불사용품전람회는 전 세계 13개 국가 1000여 곳에 이르는 관련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갤러리 나무가 출품한 임상진 작가의 '불'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 × 31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650 원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450 원
• 규격 : 8.9cm × 9.5cm